

“밥도 못 먹겠다” 이는 식사 때 밥상머리가 보이지 않아 차례를 기다리며 불평을 늘어놓는 돼지들의 목소리다. 왜 주인께서는 밥 그릇을 아끼는 것일까 하는 푸념도 섞여 있음이 분명하다. 그릇 갯수에 맞추어 식사를 하는 돼지들도 동료들의 어깨가 닿아 어느 정도 힘 주어 버티지 않으면 자세가 비스듬해 지거나, 자칫 좌우 양쪽에서 가해지는 힘에 의해 밥상머리에서 쫓김을 당하게 된다.

차례를 기다리다 지친 힘이 약한 돼지(위축돈)들은 아예 밥 그릇 차지를 포기하고 동료들이 먹다 흘린 바닥의 밥톨을 주워 먹는 것으로서 식사를 대신하고, 취침시간이 되면 생리적으로 엄습해 오는 잠을 이겨 내지 못하고 동료들과 무리를 지어 같이 자버린다. 이러한 습관은 평생 이어지게 되며, 결국 골칫덩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의 「위축돈」이 돼 주민의 눈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반복해서 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양돈사양 진리(眞理)가 탄생되게 된다. “돼지들은 개체 성장속도가 달라 복당 몇 마리씩 위축돈이 생긴다”라고.

그러나 돼지들에게 물어보

밥도 못 먹겠다



김인호

(송원축산 이사)

라. 이 말이 사실인가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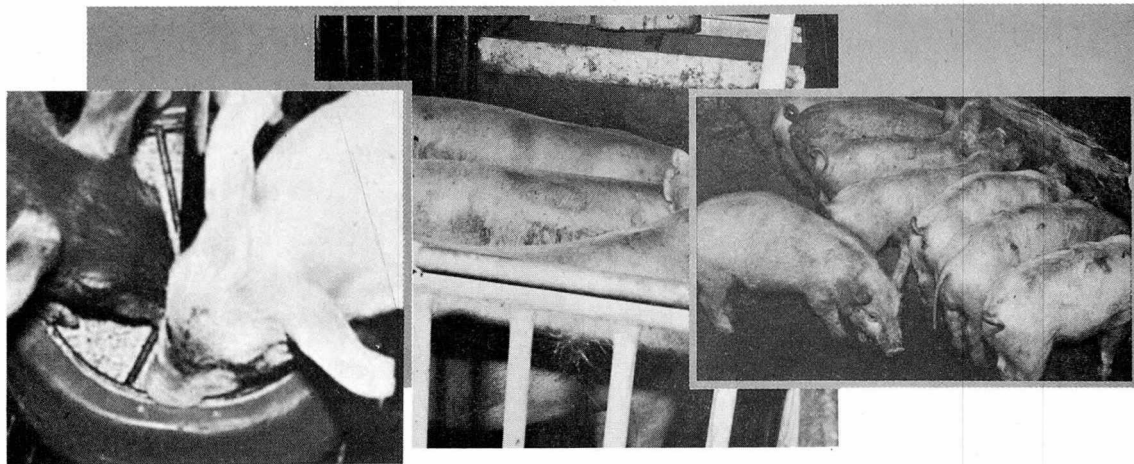
밥 그릇이 없어 먹지 못하는 돼지들이 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돼지들이 밥을 충분히 먹도록 하려면 밥상을 널찍하게 차려주고 밥상 위에 밥 그릇을 돼지 숫자만큼(1:1)있게 해주고, 밥 그릇 사이는 어깨 폭 간격이 되게끔 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돼지들에게도 식욕이 왕성해지는 식사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차례를 기다리다가 식욕이 왕성해지는 식사시간이 지나버리면 씹쓰레한 입맛을 다시며, 식사를 마친 동료들이 배불리 자는 틈으로 끼어들어 쪼그린 자세의 잠을

청한다. 이렇게 되면 위장도 발육되지 않아 고정된 체격의 위축돈이 되게 되며, 그 나중 나이가 들어도 돼지다운 돼지로 되지 못하게 된다.

한참 자라나고 있는 돼지는 무리지어 사는 것을 좋아한다. 무리 전체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서열도 정해져 있다. 새로이 합사된 낯선 상황에서는 서열을 정하는 투쟁이 있게 된다. 이 서열 순서대로 밥상차지 영역도 커진다.

서열이 정해진지 얼마되지 않은 서열 1위는 거의 하루를 밥상머리에서 보내는 식사태도를 보인다. 어찌다 다른 동료

**양돈 불경기에 따른 경영상태 악화로 밥 못 먹을 일
생길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생산성 향상이
불황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향상된
만큼 모돈을 감축하는 양보도 곁들여 양돈인
전체를 살리는 쪽으로 같이 노력할 때이다.**



들이 근처에 다가오는 기척이라도 있게 되면, 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눈짓으로 동료들을 쫓아버리기 일쑤이다.

서열 차이를 근소하게 하려면 무리를 지을 때 체격 및 성별을 구분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번식돈의 경우에서는 서열차이 분위기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정도이므로 되도록이면 같은 산차끼리 한 무리가 되도록 해주면 좋다.

“밥도 못 먹겠다”라고 불평을 늘어 놓는 돼지가 많을수록 생산성이 경영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되므로 밥상을 인색하게 차린 경우라면, 밥상을 널

직하게 개선하는 쪽(1:1, 어깨 폭 간격)으로 노력이 좋다.

양돈 불경기에 따른 경영상태 악화로 밥 못 먹을 일 생길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생산성 향상이 불황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향상된 만큼 모돈을 감축하는 양보도 곁들여 양돈인 전체를 살리는 쪽으로 같이 노력할 때이다.

복당 출하두수가 예전보다 1두 더 출하되는 생산성 향상이 라면 모돈 규모를 30% 감축해도 수익성에는 변함이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번식규모를 현재와 같이 고정시킨 상태에서

복당 1두가 더 출하되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려면 소비량을 현재보다 30% 더 늘리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노력없이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사업의 주체도 주체러니와 양돈인 모두가 밥 못 먹을 일 생길 것은 자명한 일, 이런 때 일수록 양돈인 모두 마음도 하나·몸도 하나인「화합된 몸짓」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진심으로만 꼭 찬 머리를 맞대자. **■**

〈필자 연락처 : (0636)52-2677~9〉